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아하! 복식부기 이렇군요!"

행정자치부 서기관 | 정 윤 한

제 4 강

복식부기 가계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Ⅰ. 복식부기 가계부

1. 기록하고 쳐다봐라

지난 2호에서 필자는 카네기(Dale Carnegie) 인생지침서의 내용 가운데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써서 바라봐라."라는 대목을 보고는 당시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을 기록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아무리 기록을 하더라도 수지균형으로 보고되어 재정문제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수입 100만원(현금서비스)
지출 100만원(먹고 놀기)

결과는 수지 균형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필자는 복식부기 방식의 기록을 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회계기록표를 개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소위 복식부기 방식의 가계부를 기록하는 요령을 통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2. 가계부의 기본구조

기록을 위한 장부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금년 3월과 4월에 걸친 가계부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형식으로 그려본 것이다.

〈 '07-3-4月 財務諸表(표1) 〉

〈 4. 19 〉 〈 3. 20 ~ 4. 19 〉

자 산		부 채		지 출		수 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지출의 기록(3. 20 ~ 4. 19) 〉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계											

이 표의 구조를 보면 3월에서 4월에 걸친 보고서이다. 필자는 월급날인 20일부터 다음달 월급날 전날까지의 기록을 통해 내가 거둬들인 수입을 어떻게 썼나(지출)를 보이고 그 결과로 자산과 부채가 그 전달과 대비해서 어떻게 변동되었나를 확인한다.

이 표의 특징은 우리가 분개를 할 때의 원리가 반영되어있다. 즉 재원의 원천은 대변에, 그 활용 또는 운영의 결과는 차변에 보이는 것이다. 자산과 지출은 차변에 지출과 수입은 대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역을 분개하고 분개 위치에 따라 그 금액을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되는 것이다.

20일날 월급을 받으면(통장에 입금) 그 기록은 현금 200만원/월급 200만원으로 기록한다. 굳이 분개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 금액을 월급은 수입란에 월급 200만원을 기록하고 현금은 자산을 기록하는 난에 기록하면 된다.

3. 기록요령

1) 수입의 기록

공무원인 우리의 수입은 무척 제한적이다. 대부분이 근로소득 뿐일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당시에 필자는 행정자치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 중앙부처에 전입한 이후로는 20일날 한꺼번에 월급과 수당을 주는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라 수입은 월급과 수당으로 나누어서 각각 20일과 다음달 1일에 받았다. 따라서 수입란에는 월급과 수당을 기록하였다. 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아파트값이 올라서 되팔 때 생기는 자산소득 등 .... 하지만 필자는 월급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음이 괴로웠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더 가난한 농부의 딸과 결혼하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인지라 어찌할 것인가. 겸직금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이권개입금지, 청렴의무, ... 등등의 단어를 떠올리며 꾹 참을 수 밖에...

〈 '07-3-4月 財務諸表(표2) 〉

〈 4. 19 〉 〈 3. 20 ~ 4. 19 〉

자 산		부 채		지 출		수 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20,000			(20일)월급 (1)수당	100만원 30만원

〈 지출의 기록(3. 20 ~ 4. 19) 〉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일자	금액	적요
20	20,000	점심									
계											

2) 지출의 기록

지출은 일단 한달간의 지출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의 아래분문을 만들었다. 매일 발생하는 지출거래를 기록하는 것이다. 아마 종래에 가계부는 이 부분을 주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흑자 또는 적자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20일날 만일 점심을 먹었다면 지출의 기록란에 20,000원이 기록된다. 이것을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자산의 현금

이 이만큼 감소해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부채에 신용카드 항목이 증가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점심값(지출) / 현금(자산의 감소)으로 분개되거나 혹은 점심값(지출) / 신용카드(부채의 증가)로 분개된다. 즉 복식부기 가계부의 자산, 부채와 지출, 수입은 각각 차변과 대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기록이 자산과 부채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복식부기 가계부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의 변동

수입과 지출 활동 외에 직접 자산과 부채의 변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빚을 내는 경우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100만원 받았다면 부채가 100만원 발생하고 이것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다면 현금이 100만원 증가할 것이다. 현금 100만원 / 빚낸 돈 100만원. 이것을 기반으로 지출행위를 하면 그만큼 현금이 감소되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발생되며 결국 자산과 부채의 균형이 깨지고 개인은 빚쟁이, 기업은 파산, 국가는 국가부도 등의 파국에 이르는 것이다.

4. 사 례

〈 '07-3-4月 財務諸表(표3) 〉

재정상태보고서(4. 19 현재) / 재정운영보고서(3. 20 ~ 4. 19)

자 산		부 채		지 출		수 입	
전달	×××	전달	×××	전달	×××	전달	×××
현금	×××	××은행대출	×××	21 대출이자	×××	20 급여	×××
저축	×××	××은행대출	×××	26 카드결재	×××	30 강의	×××
체은행	×××	××공제회대부	×××	총지출	×××	5 기고	×××
체은행	×××	신용카드지출	×××				
체공제회	×××	현금서비스	×××				
전세보증금	×××						
퇴직일시금	×××						
계	×××	계	×××	계	×××	계	×××

〈 지 출 내 역 〉

20	×××	김밥	29	×××	축의금	5	×××	치킨		×××	과자
	×××	엔진오일		×××	택시		×××	꽃	14	×××	굴짬뽕
	×××	자동차검사		×××	차	6	×××	과자		×××	태백산행
	×××	회식	30	×××	김밥천국		×××	장난감		×××	택시
21	×××	택시		×××	점심	7	×××	외식	15	×××	헌금
	×××	점심		×××	갈비	8	×××	형광등수리		×××	이마트
22	×××	이발		×××	맥주	9	×××	××	16	×××	택시
	×××	사우나		×××	쥬스	10	×××	××		×××	택시
23	×××	후배식사	31	0	돈 안쓴 날	11	×××	××	17	×××	목욕
	×××	택시	4/1	×××	주유, 세차		×××	××		×××	택시
24	×××	점심	2	×××	××		×××	××	18	×××	라면
	×××	가족외식		×××	××	12	×××	××		×××	삼겹살
25	×××	헌금		×××	××		×××	××	19	0	돈 안쓴날
26	×××	전화료		×××	××		×××	××			
	×××	카드결제		×××	××	13	×××	점퍼			
28	×××	샤워	4	×××	누룽지		×××	속옷			
	×××	점심		×××	××		×××	구두		×××	총지출

〈표 3〉은 올해 3월 월급날부터 4월 월급 전날까지의 필자의 가계부 기록을 보완한 것이다.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면 너무 많은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숫자와 내역을 상세히 보일수가 없다. 사실 이 표 하나만 있어도 지난 한달간 내가 뭘 하고 어디에 무슨 돈을 썼는지가 보여진다. 일기를 쓰는게 필요없을 정도다. 지출내역에 하루하루 거래활동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는 주유와 세차를 한 것이 보여지고 3월 말일은 돈을 안쓴 것으로 보아 그날은 다른 사람을 안 만났거나 만났어도 내가 계산을 안 한 날일 것이다.

이렇게 지출한 한달간의 총액이 재정운영보고서 지출란의 총지출에 기록된다. 수입과 지출의 총액을 비교하면 한달간의 수지를 알 수 있고, 제일 위 칸에 전달의 수입, 지출의 내역과 비교하여 볼수도 있다. 수입지출 활동의 결과로 자산, 부채의 변화내역을 마찬가지로 전달과 비교할 수 있다.

이 가계부를 처음 기록할 당시 지출〉수입, 자산〈부채인 나의 재정상황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고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고 그 결과로 자산을 축적시킬 것인가가 당시의 고민이 되었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 없이 그냥 카드 돌려 막기로 부채문제에 대응했더라면 아마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하던 중 필자는 부자되는 방법을 일러 준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바빌

론의 유물 가운데 한 도서관에서 출토된 그당시 부자된 사람의 일기를 소설화 한 것이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이 무일푼인 상태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를 보여주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대체로 부자가 되기위한 7가지 원칙이 이 책의 주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원칙

① 수입의 1/10은 무조건 저축하라는 것이다. ②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수입의 9/10 이하에서만 지출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예산)을 세우고 지출할 것을 권유한다. ③ 어느 정도의 돈이 저축된 후에 이 돈을 굴리라는 것이다. ④ 돈은 무조건 굴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인공도 돈을 한 상인한테 투자했는데 원금마저 홀랑 잃는 경험을 한다. 현명한 조언자의 조언을 듣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주변에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전문가가 있을 것이다. 나랑 별 차이 없는 옆에 사람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라는 것이다. ⑤ 자기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것이다. 전세, 월세보다는 자신의 가정을 안정되게 꾸리고 돈도 적게 드는 것이 자기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⑥ 노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연금, 보험, 저축, 미래의 소득의 흐름 등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⑦ 꾸준히 부자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부자되는 것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그때 그 책을 읽은 후에 가급적 필자는 그 원칙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의지가 약해서인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 가끔은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일때가 있지만 그래도 4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당시 기록한 가계부와 지금의 가계부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과거보다는 더 좋도록 하고 좋아지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살림살이의 성적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II.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작성 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성적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만드는 복식부기 가계부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지난 일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기록과 이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작성되어온 현금주의 예산결산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의 기록으로 일년동안의 재정운용 Flow만 보여준다. 자산, 부채 등 Stock과 관련한 결산은 별도로 관리되어 그 내역을 쉽게 찾아보기가 곤란하고 수입, 지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자동으로 그 변동내역이 기록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자산, 부채의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운영의 성적표를 보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성적표 하면 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보고서는 학교성적표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를 몇 점이라고 판정하여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재정운영의 실태와 결과를 숫자로써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자별로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운영이 어떠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는 가장 먼저 재정운영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고 그 중에서도 단체장과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다. 외부이해관계자로는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역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이 일차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이다. 한편 중앙정부 각 부처, 감사원 및 다른 자치단체도 이해관계자가 된다. 특히 자치단체간 이전거래,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주었다면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일년간의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고 각 이해관계인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만일 그 성적이 형편 없었다면 차기 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될 수도 있으며 성적이 특히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 감사원 등이나 내외부 기관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렸을 적에 누구나 성적을 잘 받으면 칭찬을 듣고 덤으로 용돈도 받지만 성적이 확 떨어지기라도 하면 혼나고 심하면 얻어맞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성적표가 성적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비교의 척도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쉽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적표를 읽은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2. 성적표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성적표는 재무보고서로 표현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작성된 재무보고서이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재무보고서의 구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Ⅰ.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Ⅱ.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Ⅲ.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Ⅳ.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이 재무보고서의 각각의 내용이 재정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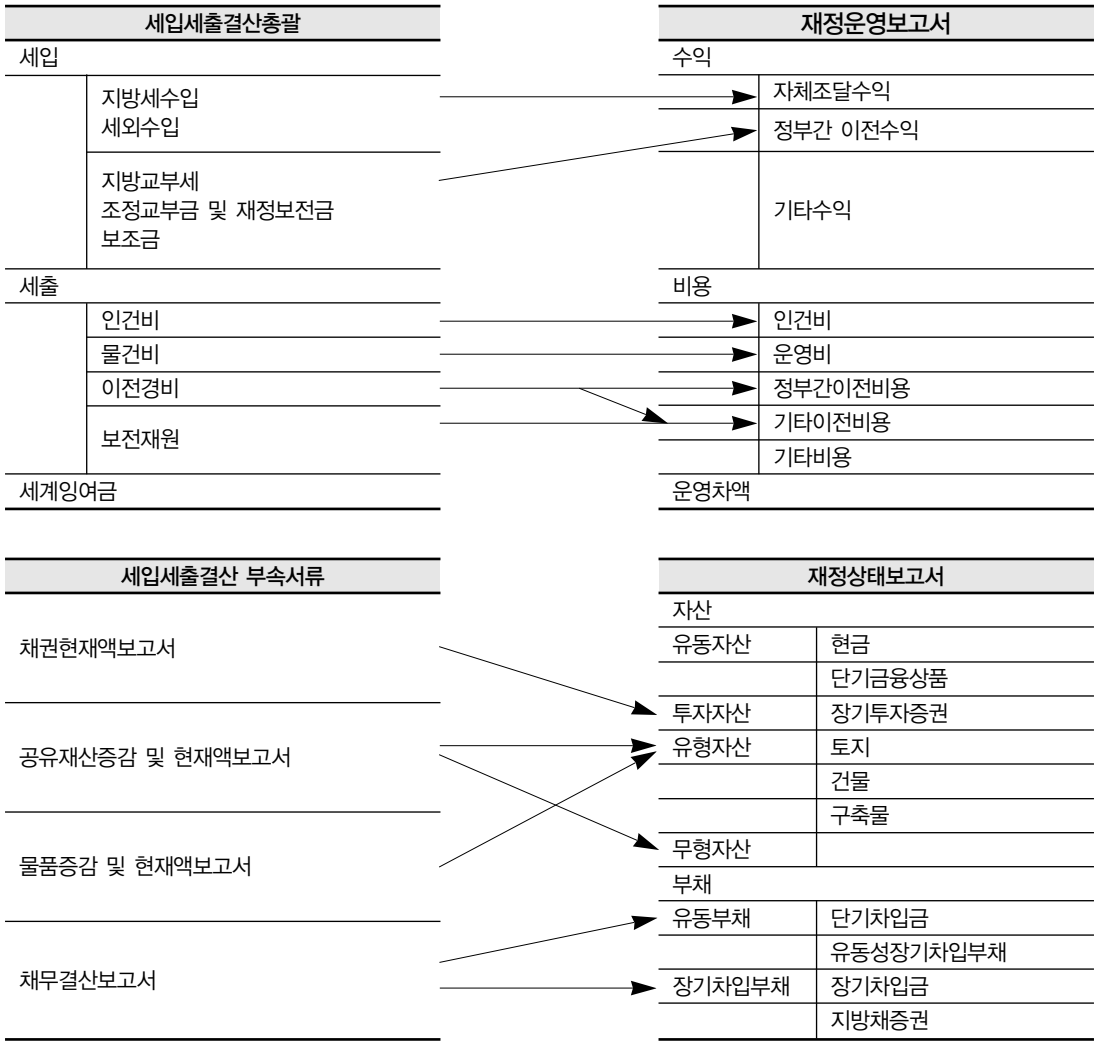
3. 성적표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크게 두가지 사항을 판단한다. 첫째는 이 성적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표시된 숫자를 보고 성적을 판정하는 것이다. 성적표의 적정성 평가와 성적 자체의 평가가 주된 큰 기능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제도도입의 초창기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재무제표 편제의 적정성

이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 전체가 망라되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재정자금의 일치 여부 확인

재정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복식부기 재정자금과 단식부기의 세계잉여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입세출 결산서상으로 수납액은 1천억원이고 지출액이 8백억원이라면 그 차인액인 세계잉여금은 2백억원이다.

이 200억원이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재정자금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세계잉여금 200억원

재정상태보고서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억
	단기금융상품 150억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40억

3)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아마도 재무보고서를 만들때 검증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이다. 의회에서도 의문이 나는 경우에는 일부 장부를 선별하여 봄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는 관리과목별 원장을 통하여 그 회계처리, 특히 분개가 정확히 이뤄졌는가를 판단한다.

오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로 보수공사 1억의 회계처리(비용과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 잘못된 경우 : 도로 1억(자산 증가) / 현금 1억 (자산 감소)
- 올바른 경우 : 도로 수선유지비(비용 발생) / 현금 1억(자산 감소)
- 해설 : 도로의 보수나 복구공사는 기존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지출이므로 비용처리한다.

② 도로 포장공사 1억의 회계처리(자산과목을 비용과목으로 처리한 경우)

- 잘못된 경우 : 도로 수선유지비 1억(비용 발생) / 현금 1억 (자산 감소)
- 올바른 경우 : 도로 1억(자산 증가) / 현금 1억(자산 감소)
- 해설 : 도로의 포장공사는 새로운 자산을 신설하는 지출이므로 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이러한 오류 사례를 통해 보면 비슷한 지출일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이 증가되는가 아니면 비용으로 표시되는가에 따라 재정운영의 성과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4)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원인 규명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재무보고서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게 된다. 이중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통해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보고되는데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당해 회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수익 비용의 증감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오류발생 금액,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유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순자산변동보고서〉

과목	당해연도(2006년)						직전연도(2005년)					
	일반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내부 거래	계	일반	기타 특별	기금	지방 공기업	내부 거래	계
Ⅰ. 기초순자산												
Ⅱ. 운영차액												
Ⅲ. 순자산의 증가						150						50
전기오류수정이익						150						50
Ⅳ. 순자산의 감소						100						20
전기오류수정손실						100						20
Ⅴ. 기말순자산												

직전연도금액과 당해연도 금액 비교

5) 결산보정분개의 적정성 검토

결산보정분개란 회계연도말(12월 31일)에 적정하게 측정되지 못한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수정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해 일년동안의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기간 손익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현금주의 결산보고서와 결정적인 차이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수수익으로 다음연도 이자수익 중 당해연도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 및 그 금액의 적정한 산정을 확인한다.

셋째, 지방세의 결손 처분 등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따른 적정 산정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충당금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등이다.

다음호에서는 재무제표를 읽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